

「생산적 금융 대전환」 추진방향

2025. 9.

금 융 위 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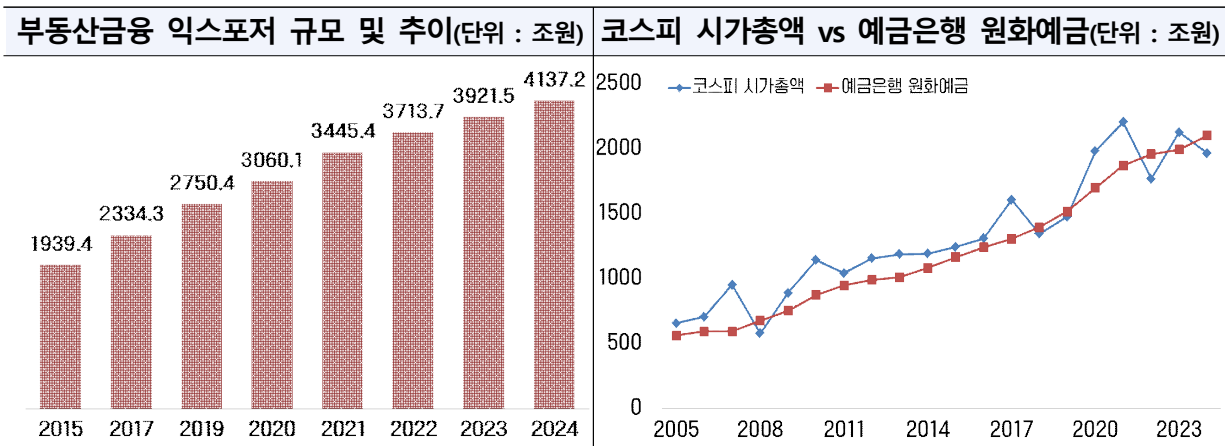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「생산적 금융 대전환」 추진방향	2
과제1) 정책금융 전환	3
과제2) 금융회사 전환	4
과제3) 자본시장 전환	5
III. 향후 계획	6

I. 추진 배경

□ 그간 부동산, 수도권, 예금·대출에 대한 금융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은 미흡

- ① (부동산) 최근 9년간 자산과 자금공급의 부동산 의존 확대
 - 가계 자산의 64%가 부동산으로, OECD 평균 52.9%를 큰폭 상회
 -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,137조원으로, GDP 대비 비중이 9년간 1.5배 증가('15말 111% → '24말 162%)
- ② (수도권) 지역 생산(52.7%) 대비 은행 자금(66.7%)의 편중이 심각
- ③ (예대) 기업 자금조달中 대출 비중이 확대('15말 24.2% → '24말 29.7%) 되었으며, 최근 은행 예금(2,095조원)이 코스피 시총(2,094조원) 역전



□ 금융회사는 리스크 없이 담보대출 위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

* 금융권(은행·보험·증권) 순이익: '22년 27.1조원 → '24년 43.3조원(+59.8%)

○ 그 결과 ①성장동력 저하, ②지방-수도권 양극화, ③민생경제 위축(가계소비 제약*) 등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확대

- * ①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, 민간금융 공급의 생산성 개선효과 하락(BIS, '24.9월)
- ② 수도권아파트 수익률이 여타자산 보다 높고, 지방-수도권 자산·소득 격차 심화
- ③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 감소를 유발(상관계수 $\Delta 0.12\%$, 한은)

➔ 시중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바꾸기 위한 「금융 대전환」 추진 (※ 7.3. 대통령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관련)

II. 「생산적 금융 대전환」 추진방향

※ 대통령님 취임 30일 기자회견문(7.3.목)

“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‘함께 잘 사는 세상’이 열립니다. …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”

「금융 대전환 회의」를 통해 「생산적 금융」으로 전환

< 3대 전환 9대 과제 추진 >

과제1) 정책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

- 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+α 집중 투자
- ② 장기·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
- ③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,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

과제2) 규제·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금중개 역할 확립

- ①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쓸림을 억제하는 규제 개편
- ②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
- ③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·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

과제3)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

- ①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 확대
- ②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
- ③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

- ◆ 부동산에서 첨단·벤처·혁신 기업으로, 수도권에서 지방으로, 예금·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금융 분야의 자금흐름 대전환
- ➔ ‘생산적 자금공급 → 산업·지역 성장 → 국민소득 증대’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**신성장동력** 발굴

과제1) 정책금융이 첨단·벤처·지역으로 시중자금 물꼬 전환 선도

◆ 정책금융과 공적기금이 시중자금의 첨단·벤처·지역 투자를 선도

1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에 150조원+α 집중 투자

- 1 (국민성장펀드)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·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전반에 맞춤형 투자* 제공

* 예) 원천기술 스타트업 → 지분·후순위투자, 수출기업 → 대규모 설비자금 저리대출

- 향후 20년 이상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고, 국민참여형 펀드로 국민과 성장 과실 공유

- 2 (정책금융)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, 기술금융 강화 등

2 장기·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

- 1 (장기투자) 장기투자에 적합한 공적기금(68개 연기금 통합 운용 연기금투자폴 등) 벤처투자 확대

- 2 (세컨더리)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하고, 기술 실수요자인 기업 M&A 및 CVC 활성화도 모색

- 3 (스케일업) 성장금융 등을 통한 민·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 확충

3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,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

- 1 (지역특화)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, 정책금융과 지방 재정·민간자본이 함께하는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 확산

- 2 (에너지전환) 기후금융 공급부터 ESG금융 인프라 확충까지, 정책금융이 지역 핵심산업이 될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

- 3 (산업혁신) 지방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업 사업재편 추진

과제2) 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역할 확립

◆ 은행·보험·제2금융권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 금융 역할 확립

1]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쓸림을 억제하는 규제 개편

※ 특히, 예금보험한도 상향이 비생산적 부분의 자금쓸림을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

① (건전성 규제) 은행·보험사가 벤처기업·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적극 자금공급할 수 있도록, 자본·운용규제 개선*

* 예) 정책목적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은행 위험가중치 완화(400% → 100%)

② (부동산금융 관리) 쓸림이 발생한 부동산 금융은 건전성 규제 강화

-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검토

- 부동산PF 등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및 한도 규제 개선

2]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

① (검사) 제재 위주 먼지털이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사전·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여,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

② (KPI)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(KPI)에 고객 니즈(needs) 충족, 관계 형성 등 손익 지표 외 자금공급의 품질(Quality) 반영 유도

③ (면책) 생산적 자금공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 등 적극 면책

3]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·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

① (소상공인)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평가 등 금융 공급체계 전면개선 검토

② (제2금융) 정책보증 공급기관 확대 등, 지역밀착·소상공인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정립

③ (지역재투자) 은행의 지역 재투자에 대해 평가 내실화 및 규제상 인센티브 제공(예: 예대율 산출시 차등) 등

과제3)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

◆ 초기 창업 → 중기 성장 → 후기 상장의 단계별로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수익을 향유하는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

1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 확대

- 1 (STO) 중기·소상공인이 보유자산·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(STO) 제도화
- 2 (BDC)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(BDC)를 도입하고 세제혜택 부여 검토(세제당국 협의)
- 3 (플랫폼) 벤처·혁신기업의 주식을 제도권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정착

2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

- 1 (대형IB) 대형 IB(종투사)에 새로운 조달(발행어음)과 운용(IMA) 수단을 허용하고,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*

* 예) 발행어음·IMA를 통한 조달액의 25% 이상 모험자본에 공급
→ 최대 약 20조원 내외 의무 발생 추정

- 2 (PEF) PEF 투자기업 선별 및 투자운용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

3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

- 1 (시장구조) 상장기업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진입·퇴출이 이루어지도록 3개 주식시장(코넥스-코스닥-코스피) 역할 재정립
- 2 (시장신뢰)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 확립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
- 3 (수요기반)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,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, 퇴직연금 개선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노력

III. 향후 추진계획

◆ 기업 등 금융 수요자 의견청취와 현장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

「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」 (금융위원장 주재)

금융수요자, 민간전문가 중심 의견 청취



1 금융위원장 주재 「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」 통해 주요 방안 발표

- 금융권 위주로 참석하던 기존 논의체계에서 벗어나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의견 청취
- “생산적 금융” 테마로 일관되게 발표·추진하여 금융산업·감독 전반의 화두를 제시
- 회의 참석자 등은 개별 과제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

2 개별 과제는 업계·전문가 등과 함께 「실무 T/F」를 구성하여 검토

- 정책금융·금융회사·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 국을 지정하고, 과제별로 전문가·수요자 등이 다수 참여하는 실무T/F 구성
- 업권별 협회에서 자체 T/F를 구성하여, 규제·관행 등 감독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·유관기관과 소통
- 연구원 합동 T/F를 구성하여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구조와 세제·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분석